

제3호 연구소기업 설립 인가 확정

생진원, 농산물 가공 전문기업 '원헨드밀' 설립 쌀 등 활용 다이어트 효과 있는 간편편이식 출시 예정

(재)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하 생진원, 원장 김동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생진원 제3호 연구소기업 '원헨드밀'의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에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생진원이 보유한 농산물을 가공해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을 만드는 기술을 출자 받아 설립되었으며, 이러한 기술력을 바

탕으로 쌀 등을 중심으로 도내 농산물을 활용해 시장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가정용 간편편이식(HMR, Home meal replacement)을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제3호 연구소기업 원헨드밀은 생진원이 지난 2018년 12월에 종료된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쌀에 대한 다양한 효능을 분석하

고, 곡물 전처리 및 가공기술 등을 이전받아 연구소기업을 창업하게 됐다. 향후에는 연령별 기호에 맞춘 다양한 곡물 가공품을 개발해 성공적인 연구소기업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출자를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기술사업화 제도로 공공연구기관(출연(연), 대학, 전문(연) 등)이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중 20%이상의 주식(지분 포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특구 안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생진원 김동수 원장은 "연구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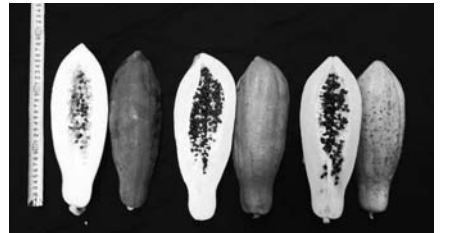
의 창업초기부터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기술사업화 지원전략에 차별성이 있는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와의 협력시스템을 통해 상호기관의 새로운 성공모델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특구지역 내 본사나 공장이 위치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야 하는 기본 조건이 있다. 연구소기업 설립을 희망하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면 생진원 정이형 기술사업화팀장(063-210-6641)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익으면 '과일' 덜 익으면 '채소'

농진청, 파파야 성숙 단계 따라 주요 성분 분석 덜 익혀먹을 시 완속과보다 칼슘 1.5배 높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열대 과일 중의 하나인 파파야는 덜 익은 상태의 채소로 먹는 것이 영양섭취 면에서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인 파파야는 외국인 근로



왼쪽부터 녹색과(채소용), 50%착색, 100%착색(과일용).

자나 결혼 이민자들에게 '에스닉 푸드'(Ethnic food)로 인기 있는 아열대 작물이다. 아열대 지역에서는 파파야를 덜 익은 상태인 채소로 즐겨 먹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과일로 알려져 있고 완전히 익혀 먹는 것을 선호한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국내 생산 파파야의 소비 확대를 위해 파파야의 성숙 단계에 따라 녹색, 절반쯤 익은 것, 완전히 익은 것으로 나눠 주요 성분을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파파야가 녹색일 때 100g당 열량과 탄수화물은 각각 23.0Kcal, 4.7g이고, 완전히 익었을 때는 32.7Kcal, 7.0g으로 나타나 과실이 주황색으로 익어감에 따라 열량과 당도가 증가했다. 반면, 무기양분 함량은 녹색일 때가 완전히 익은 것보다 칼슘 1.5배, 마

그네슘 2배, 철 1.2배, 구리 1.4배 정도 높았다. 따라서 파파야는 주황색으로 익을수록 당도가 높아져 과일로 먹기 좋지만, 영양섭취 면에서는 덜 익은 채소로 먹는 것이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확인됐다. 덜 익은 녹색 파파야는 샐러드, 절임, 튀김, 볶음 등 다양한 요리로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식재료와도 잘 어울린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서형호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장은 "이색 먹거리로 주목 받는 파파야 생산을 위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품종을 육성하고 재배 기술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파파야 재배면적은 2012년 0.2헥타르(ha)에서 올해 15.1헥타르(ha)로 크게 늘었으며, 생산량은 688.5톤에 이른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급성기뇌졸중 평가 8회 연속 '1등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에서 8회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지난 26일 병원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48개소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응급실을 통해 일원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8차 적정성 평가에서 병원이 1등급을 획득했다.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는 △전문인력 구성 여부 △뇌 영상 검사 실시율(1시간 이내)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 투여율(1시간 이내)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 고려율 △흡입성 폐렴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 등을 평가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점수 100점 만점을 받으며 1등급을 획득했으며, 특히 심평원이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를 시작한 1차부터 이번 8차에 이르기까지 8회 연속 최고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김윤상 기자

모바일 전자고지 선도 '인정'

국민연금, 대표기관 선정돼 기기부장관상 수상 전자고지 건수 전년보다 20배 이상 증가·우편비용 절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지난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주최 모바일 전자고지 성과발표회 행사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ICT분야 최초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기존 우편 중심의 안내방식을 모바일 기반으로 더욱 개선함으로써 공공분야 모바일 전자고지를 선도해 온 점을 널리 인정받은 결과다.

이날 성과발표회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모바일 고지 도입 대표기관으로서 선정된 공단이 우수사례를 발표했으며, 성과 공유를 통해 보다 많은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모바일 전자고지 확산 분위기가 조성



에 기여했다. 공단은 스마트폰 보급률 95%인 전국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대표 서비스인 모바일 전자고지로 기존 업무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발송 채널을 점차 확대해 왔다. /김윤상 기자

그 결과 지난해 가입내역안내서 등 총 19종의 안내문, 1442만건을 모바일 서비스로 발송함으로써 전자고지 건수가 전년 대비 20배 이상 대폭 증가했으며, 우편비용 등 약 4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공단의 성과는 이번 과기정통부 장관 수상 외에도 지난해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관 '세계 혁신 우수사례'에 대한 한국 11개 대표 사례 중 하나로 제출되는 등 대외적으로 널리 인정받아 왔다.

온실가스 배출 '줄이고' ... 농가 소득 '올리고' ...

시설원에 에너지 이용 효율화 분야 감축 방법론 개선... 소규모 감축 농가들도 참여 가능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자발적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대상이 아닌 사업자(농업인)가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15가지 방법론 중 선택)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정하고 톤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2년에 도입한 자발적 감축사업에는 지금까지 542 농가

가 참여해왔으며, 이 중 405 농가에서 약 8만7,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총 8억8,000만원(누계액)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보다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원에 농가가 주로 활용하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을 개선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다경보온커튼을 이용하는 시설원예의 경우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등이 간소화되어 그동안 사업 참여가 어려웠던 소규모 감축 농가들도 개별 또는 지역·마을 단위 묶음 사업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김윤상 기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전북은행, 오늘부터 신청접수... 1인 1000만원 한도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오늘부터 접수한다.

이번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1차 때와 달리 전북은행에서 신청과 접수는 물론이고, 보증심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2차 대출의 재원은 전 은행권 총 10조원으로 소상공인 1인당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0만 명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최대 7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1차에 비해 대출 금액은 줄었지만 대출 선택을 늘릴 수 있는 대상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은 2차에 신청할 수 없다. 국내나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기존 채무 연체자, 위탁보증 금지대상 및 보증취급 제한업종도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연 2.90% ~ 4.99% 수준이며, 대출기간은 5년에 2년 거치후 3년 동안 분할 상환하게 된다. 1000만 원을 4%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2년 동안은 이자(1년에 40만원)만 내고, 3년차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이번 2차대출은 지속적인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유동성 부족, 매출감소에 따른 결제자금 부족, 고정지출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